

朝鮮日報

폼페이오 “제2 냉전 시대... 결국 美와 그 동맹국들이 이긴다”

입력 2025.05.23. 오전 12:56

[제16회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] ‘트럼프 2.0, 美의 한반도 전략’ 대담

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(ALC) '트럼프 2.0, 전 美 국무장관이 말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' 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. 사회자로는 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나섰다. /박성원 기자

‘트럼프 1기’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끌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21일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(ALC)에서 미·중 간 이른바 ‘제2 냉전’에 대해 “미국이 패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믿는 옳은 방법을 포기했을 때뿐”이라면서 “결국 미국과 동맹국들이 승자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‘트럼프 2.0,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’을 주제로 한 대담에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부터 “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재임 기간 동안 미·중 패권 전쟁은 어떻게 진행될까”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. 그는 이어 “미국이 지금 벌이

는 것은 단순 패권 다툼이 아니라 문명과 존엄성을 위한 사투”라면서 “결국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을 포함해 미국과 그 동맹들, 좋은 편(the good)이 이길 것이다. 그에 반해 중국은 악(evil)”이라고 했다.



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(ALC) '트럼프 2.0, 전 美 국무장관이 말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' 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./박성원 기자

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그는 “한국 국민이 고민해야 한다. 미국은 분명히 한국의 결정을 지원할 것”이라며 “내가 한국 대선에 투표권이 있다면 핵무기를 갖추자는 이에게 투표할 것”이라고 했다. 폼페이오 전 장관은 지난해 ALC에서도 “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적인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”고 했었다. 그는 과거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을 네 차례 방문한 바 있다.

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유럽연합(EU)·캐나다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을 대상으로도 ‘관세 전쟁’을 선포했던 일은 아쉬운 결정이었다는 견해도 밝혔다. 폼페이오 전 장관은 “초기 관세 정책이 중국을 목표로 했어야 하는데 생산적이지 못한 모양새가 됐다. 하지만 점차 자리를 잡으며 개선될 것”이라고 했다.

전 이사장이 다음 달 치러지는 한국 대선에 앞서 한미 동맹에 관한 조언을 부탁하자 폼페

이오 전 장관은 “조언을 할 위치는 아니고 바람은 있다. 새로 무엇인가를 할 생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견고한 양국 관계를 망치지 않기를, 지난 수십 년간의 교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”고 했다.

김회원 기자 hwkim@chosun.com

Copyright © 조선일보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.

이기사주소 <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3/0003906887>
